

에이즈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1. 이끄는 말

에이즈는 소리없는 핵폭발로 비유할 수 있다. 핵폭발에는 세가지 큰 위력이 있다. 즉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고온의 열로 인한 피해, 방사능을 포함한 강렬한 빛에 의한 피해 그리고 모든 걸 휘감아 날려버리는 대폭풍으로 인한 피해이다. 에이즈도 그와 같은 세가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첫째 치명적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체적 피해, 둘째 영혼까지 파고들어 살아 있으면서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하는 정신적 피해, 셋째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가까운 친지와 관련자 모두를 강타하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소용돌이 등이다.

이미 그 에이즈의 영향권에 든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세계적으로 1,700만명 정도 감염되었으며, 이미 200여만명이 사망했으며, 400만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 하루에 6,000여명이 새로 감염되고 있으며, 또한 1,3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향후 5년 정도 지난 2000년이 되면 4,000만명에서 1억1천만명까지 감염될 것으로 추정한다. 향후 15년이 지난 2010년이 되면 10억의 세계인구가 감염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 보고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대한 피해 규모에 비해서 그 피해 강도는 어떤가를 살펴보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라면 에이즈는 그 생명을 여지없이 빼앗아 버린다. 아직까지 치료가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발병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장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감염자들과 환자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공존이 불가능한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그로 인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게



권관우

한국에이즈연맹 본부장

되는 정신적 고통이다.

그래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는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 친인척,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까지 사회적 냉대와 물이해로 배척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게되는 직·간접 피해자가 된다고 보고 2000년까지 1억5천에서 2억명 가량의 이러한 에이즈로 인한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에이즈의 사회적 영향

가.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환자로 진단하면 여러가지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된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을수록 명예가 실추되고, 인격이 말살을 당하면서, 부부간에도 상호불신, 불화로 이혼하거나, 가정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자녀가 있다면 그 또한 좌절과 고통으로 정상적 가정생활이 어렵게 된다.

학교에서도 등교거부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고 적응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친구와 친지들조차 받을 끊게 된다.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도 격리당하게 되어 타의든 자의든 은둔생활이나 도피생활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가족중 자녀나 동생들의 약혼이나 결혼도 파혼되거나 거부당하게 되며, 병원 입원시에도 체혈을 기피당하거나 사망 후에 장의사까지 장례를 거부한 사례도 발생되곤 한다.

실제로 94년도 후반기에 알려진 사건만 하더라도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것이란 추측이나 자가진단만으로도 자살한 사례가 2건이 나타났다. 이는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알려지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울 것인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확실히 감염된 것을 확인도 하기 전에 생을 마감했던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비극이다. 왜냐하면 에이즈란 육체에 침범한 질병일 뿐이다. 인간의 가치가 육체를 넘어 정신을 중심한 인격에 있다면 아무리 육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인간적인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에이즈란
육체에 침범한
병일 뿐이다.
인간의 가치가
육체를 넘어
정신을 중심한
인격에 있다면
아무리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비인간적인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나. 에이즈가 기업체를 중심한 사회활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국의 기업은 지금 너무도 태연하고도 무관심하게 에이즈를 바라보고만 있다. 미국과 에이즈 만연국의 산업계 전체에 퍼진 에이즈 혼란상태를 강건너 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은 1988년 무렵부터 기업가들이 이 에이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미 에이즈로 말미암은 제반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소송의 소송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재정부담 때문에 기업이 붕괴된 사례도 있고, 에이즈가 미국 경제의 앞날을 가로막는 크고 어두운 불안요인이 되어버렸다.

주감염 연령층인 30~40대 직원들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간부들로서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 가면 가장으로 한 가정의 경제적 지주이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면 가정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정파탄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에이즈로부터 가정과 회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기업내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가 오히려 교육실시 이전보다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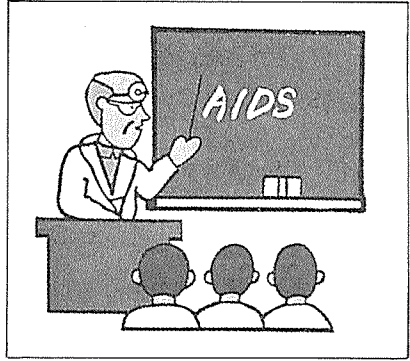
직장에서
AIDS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면,
만일 직원 중에
AIDS 감염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 신뢰관계 붕괴,
종업원 사기저하,
생산성 저하,
출근 거부,
실적 감소 등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에이즈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리 실시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직원중에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불안으로 인한 상호신뢰 관계의 붕괴, 불안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종업원의 사기저하, 직장 분위기 악화로 생산성 저하, 실적 감소, 출근 거부, 업무수행 거부 등 에이즈로 인한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각종 단체에서 개인의 불안이 바로 확대되어 사회혼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진정시키려 해도 어렵다. 최악의 경우는 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체들은 전혀 무감각하다. 실제로 한국에이즈연맹이 이와 같은 정보를 전해주고 사전 예방교육으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도와 주려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이다. 현재 한국에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홍보교육의 미비로 인해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에이즈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회사의 상품을 소비자가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제약회사 등의 업종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크다. 그에 따른 거래처 격감 및 주문단절로 인한 손실은 예상외로 클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 회사가 도산했다. 또한 써비스 업종인 호텔, 은행, 여행회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감염자를 고용상 차별해서는 안된다. 감염을 이유로 해고할 수도 없다. 그런 경우 인권면에서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현실적으로 에이즈 감염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법원에 해고 취소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회사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다. 합리적 사고가 통용되고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 당국까지 앞장서서 감염학생의 등교거부 등 시위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난 후 아무리 전문가를 초빙해 학교생활은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염자가 있는 주거지, 아파트, 지역사회에서까지 차별을 받을 수 있고 군부대도 에이즈로 전력손실, 인원 결손 및 사기저하 경비 증가 등의 폐해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에이즈는 외향선원을 관리하는 해운업계, 해외 취업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건설업계, 특수업 종사자가 많은 유흥가, 음성적 매춘 행위가 벌어지는 곳, 관광업계, 젊은 남녀 밀집지역인 공단지역, 청소년층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악영향과 폐해를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단위인 가정파괴를 노리며 쳐들어 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AIDS 감염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법원에
해고 취소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에서는 결혼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과거 성 경력을 모르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불안으로 순결한 사람들일수록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앞으로는 결혼 전에 에이즈 검사서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시에도 에이즈 검사서를 둘러싼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3. 맺는 말

에이즈로 말미암은 사회전반적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지혜롭게 극복하여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에이즈 예방과 근절을 서둘러야 한다.

전세계 에이즈 감염의 75% 정도가 성관계로 인한 것이고 한국에서 밝혀진 통계를 보면 88%가 성접촉이다. 예방대책은 간단하다. 감염자와 성관계를 통한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 감염자와의 성관계를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콘돔을 강조할 경우의 심리적 요인과 실제의 효율을 고려해야 한다. 실패에 따른 책임도 중요한 문제다.

지금의 현실은 콘돔을 통한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정서를 존중하여 성관계 자체의 선별과 책임있는 성 행동의 촉구가 홍보의 1순위가 될 수 있다. 강력한 촉구를 급박한 상황설명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왜 한국에는 에이즈 예방운동의 방향성에 일치된 공감대가 약한가.

에이즈는 하나의 특이한 문화다. 한국의 문화와 맞물려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지만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오늘 한국에서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대책이 중요하다. 어떠한 방향으로 에이즈를 바라보며 대처할 실제 예방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일관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오늘밤 하루에도 100만명의 매춘 여성들을 상대하는 500만명의 매매춘 남성들이 에이즈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함을 덮어두고 위태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계속해서 “위험한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진실된 경고가 큰 소리로 외쳐지지 않기 때문에. ❧

AIDS는 하나의 특이한 문화다. AIDS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실제적인 예방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일관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